

한국독립운동사-러시아지역

박환(수원대)

1860년대 초 두만강을 건너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하기 시작한 한인들은 1930년대에는 2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 수로 증가하였다. 이들 재러동포들은 1905년 을사조약으로 조선의 외교권이 일본에 의하여 강탈당하자 국권의 회복을 위하여 가열찬 투쟁을 전개하였다. 또한 1910년 일제에 의하여 조국이 강점당하자 러시아 전역에서 더욱 적극적인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구한말부터 1922년까지 재러동포들이 전개한 이러한 항일투쟁은 1945년 8월 광복의 밑거름이 되었다.

1. 구한말 의병운동과 계몽운동

일본은 1905년 11월 을사늑약을 체결하여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였다. 아울러 1907년 6월에 헤이그에서 개최된 만국평화회의에서 고종이 파견한 이상설, 이준, 이위종 등 3인이 한국의 억울한 사정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려 하자 오히려 이를 기화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황태자로 하여금 그 뒤를 잇게 하였다. 또한 일본은 고종의 양위에 만족하지 않고 한일신협약을 체결하여 통감정치를 강화해 나갔다. 그로써 통감은 한국의 내정에 일일이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이어 1907년 8월에 일본은 순종의 허락을 얻어 군대를 아주 해산해 버렸다. 그리고 이에 저항하는 군인들을 2시간여의 전투 속에서 진압되고 말았다.

국내에서 들어오는 이러한 소식들은 재러동포들을 흥분시켰다. 특히 헤이그에서 들려온 이준의 사망 소식은 재러한인들을 더욱 격분시켰으며, 이에 한인들은 의병을 일으킬 준비를 전개하였던 것이다. 러시아지역에서의 한인들의 의병활동은 동의회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대표적인 의병장으로는 최재형, 이범윤, 이위종, 안중근, 홍범도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안중근은 단지동맹을 결성하고 이등박문을 하얼빈에서 처단하였다.

구한말의 계몽운동은 신문의 간행으로 대표된다. 해조신문과 대동공보가 그것이다. 해조신문은 1908년 2월 26일에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톡에서 창간된 교포신문으로 일간으로 간행되었다. 간행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 인물은 정순만과 최봉준이며, 특히 최봉준은 이 신문의 운영에 있어 재정적인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해조신문은 조선의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간행되었으며, 한글로 간행된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겠다.

대동공보는 구한말 일제의 조선침략이 더욱 노골화되던 시기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거주하고 있던 동포들에 의하여 구국운동의 일환으로 1908년 11월 18일 창간되어 1910년 9월 1일까지 약 2년 동안 간행된 한글 민족지였다. 이 신문의 종지는 동포의 사상을 계몽하여 문명한 곳으로 나아가게 하며 국가의 독립을 쟁취한다는 것이었다.

재러한인의 권익과 조선의 국권회복을 위하여 활발한 언론활동을 전개하던 대동공보는 일제의 요청에 따른 러시아 당국에 의해 1910년 9월 1일 폐간되고 말았다. 그러나 재러한인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1910년대에 대양보, 권업신문, 대한인정교보 등의 교포 신문과 잡지등을 계속 간행, 조국의 해방을 위한 언론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한편 1910년 8월 일제에 의해 조선이 강점되자 상트피터스부르크에서는 연해주지역의 항일운동을 지원하던 주러시아 이범진 공사가 목매 자결 순국하였다. 연해주 지역에서는 그를 추도하는 모임들이 잇달아 개최되었으며, 그 뒤 한인 민족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다.

2. 1910년대 재러한인의 민족운동 전개: 권업회의 조직과 활동

권업회는 1911년 12월 19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신한촌에서 조직된 연해주 지역 재러한인의 권익 옹호기관이자 독립운동 단체였다. 지금까지 연해주 지역 한인 전체를 대표하는 기구가 없었던 점을 상기해 볼 때 이 단체의 설립은 한인독립운동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전에는 함경도파, 평안도파, 서울파 등으로, 또는 토착세력, 외부이입세력 등으로 나누어져 각각 군소단체들이 난립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 단체들은 일제의 조선 강점, 러시아의 대한인정책의 변화 등에 발맞추어 하나의 단체로 뭉치게 되었던 것이다.

권업회는 조국이 일제에 의하여 강점된 상황 하에서 망국민에 의하여 해외에서 조직된 단체라는 기본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권업회는 그 설립과 활동, 해산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의 대한인정책의 강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업회는 자신의 주변 환경을 최대한 이용하며 재러한인의 권익옹호와 조국의 독립을 위한 준비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농작지개척활동, 입적 청원활동 등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권업회는 재러한인의 권익옹호와 조국의 독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였다. 그러므로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많은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권업신문의 발간은 권업회의 중점적인 사업이었다. 그 점은 권업회의 재정 지출 중 권업신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다는 사실을 통하여 단적으로 알 수 있다.

결국 권업회와 권업신문은 모국이 일제에 의해 조선이 강점된 상황 하에서 이국땅에서 살고 있는 동포들에 의해 조직된 단체이며 신문이라는 기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었다. 더구나 러시아의 대한인정책은 이들의 활동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것이다. 이러한 주변 여건 속에서 권업회는 곤다찌 총독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재러동포들의 권익옹호와 계몽 등을 통한 지식의 발달, 민족의식의 고취 등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연해주지역에서의 재러한인들의 민족운동은 제1차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러시아와 일본이 연합국이 됨으로써 쇠퇴하게 되었다. 그 후 권업회에서 활동한 인물들은 러시아 혁명 과정을 거치면서 이동휘, 김립, 최재형, 계봉우 등 대다수의 인물들이 대한국민의회, 한인사회당 등에 참여하여 혁명 이후 한민족운동을 주도하게 된다.

3. 러시아 혁명이후의 독립운동과 3.1운동의 전개

노령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은 2월 25일 전로국내조선인대회를 개최하여 독립선언서 제작 및 선포에 관한 준비를 하는 가운데 3월 8일 육로로 러시아에 온 다수의 조선인들로부터 조선에서 3.1운동이 발발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에 당일 블라디보스톡 신한촌 한민학교에서 개최된 기독교청년회 석상에서 김하구는 국내에서의 만세소식을 설명하고,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며, 동포들에게 민족의식을 크게 고양시켰다.

국내에서의 만세운동 소식에 접한 대한국민의회에서는 만세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독립선언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1919년 3월 17일 오전 9시경 다수의 조선인이 참가한 가운데 우수리스크 코리사코프가 거리에 있는 동흥학교 앞 광장에서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이에 놀란 일본 헌병대는 물론 수비대가 바로 취체를 러시아관헌에게 요청하여 그들이 공포 50발을 발사하여 오전 11시 20분경 참여한 군중들을 해산시켰다. 아울러 이때 러시아 당국도 당시 독립선언서를 배포한 조선인 사범학교 학생 4명을 체포하였다.

블라디보스톡에서는 우수리스크로부터 문창범이 오면서 적극적인 운동을 시작하였다. 3월 17일 오후 3시 조선인 2명이 한글과 러시아어로 된 독립선언서를 블라디보스톡 일본총

영사관에 전달하였다. 그리고 오후 4시경 신한촌에서 학생 등 다수의 조선인이 모여서 큰 길에서 연설을 하고,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집집마다 국기를 게양하고 만세를 불렀다. 이에 일본 측이 러시아 관헌에게 제제를 요구하자 학생들은 집회 장소를 신한촌에서 시내로 변경하였다. 학생들은 점차 어두워져 안면을 식별할 수 없는 틈을 타서 시중에서 자동차 3대, 마차 2대에 나누어 타고 가도를 달리며, 구한국기를 차위에서 흔들며 만세를 불렀다.

한편 재러동포들은 시위운동을 전개하는 외에 3월 17일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11개국 영사관 과 6개의 러시아 관청에도 선언서를 배포하였다. 러시아지역의 3.1운동은 블라디보스톡과 우수리스크 외에 러시아 전 지역에서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러시아 혁명 이후 한인들은 러시아 혁명군과 힘을 합쳐 러시아 백군과 시베리아에 출병한 일본군을 물리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한인들의 전개한 대표적인 전투로서는 이만(현재 달레네첸스크) 전투, 올가전투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대표적인 항일운동가로 김 스타нге 베치, 한창걸, 이용, 김경천, 김규면, 최계립 등을 들 수 있다.

1922년 러시아 내전이 종결되자 러시아 혁명정부는 한인무장부대들을 해산하였다. 결국 이를 계기로 러시아지역에서의 항일운동을 막을 고하고 말았다.

4.. 러시아 지역 한인독립운동의 역사적 성격

러시아 극동지역은 한반도와 두만강을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한국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특히 두만강 건너 연해주 곳곳에는 발해의 유적지들이 널리 퍼져 있으며, 1860년대 이후 이곳에 거주하였던 한인들의 숨결이 남아 있다. 또한 구한말 이후 지속적으로 전개된 항일투쟁의 열기와 유적지들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19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당했던 동포들이 다시 돌아와 재정착하고 있으며, 구소련의 몰락 이후에는 많은 한국업체들이 진출하고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은 1910년대 국내외를 걸쳐 민족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지역이다. 이 지역의 민족운동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연해주에서는 1905년부터 1908년까지 두만강 대안인 연추(현재: 크라스키노)지역을 중심으로 의병운동을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 대표적인 의병장으로는 이범윤, 최재형, 홍범도, 안중근 등을 들 수 있다. 재러동포들은 이들 의병장들을 중심으로 활발한 국내진공작전을 전개하여 일본군에게 큰 위협을 가하였다. 특히, 의병장의 1인인 안중근 의사는 1909년 10월 이등박문을 포살함으로써 한국독립운동의 활성화 및 국내외 동포들의 민족의식 고취에 크게 기여하였다.

둘째, 1905년부터 1910년까지 연해주 블라디보스톡 지역을 중심으로 애국계몽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한민학교 등 민족학교를 설치하여 동포 자제들에게 민족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신문 등을 간행하여 국내외 소식전달과 항일의식 고취에 크게 기여하였다. 대표적인 신문으로는 『해조신문』과 『대동공보』 등을 들 수 있다. 『해조신문』의 경우 국내에서 「시일야방성대곡」으로 유명한 장지연을 주필로 초빙하였다.

셋째, 1910년 일제에 의해 조선이 강점될 기미가 있자 연해주 한인들은 유인석을 중심으로 13도의군을 조직하여, 국내로 진공하여 일제를 몰아내고자 하였다. 아울러 성명회 선언서를 발표하여 일제의 조선강점의 부당성을 전 세계에 선포하여 한국의 독립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넷째, 1911년 연해주 한인들은 한인자치기구로서 권업회를 조직하여 한인들의 자치활동과 독립운동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신채호, 이상설, 장도빈 등을 주필로 하는 권업신문도 간행

하여 민족의식 고취에 노력하였다. 또한 이동휘 등을 중심으로 대한광복군정부를 수립, 일제에 대항하여 한국의 독립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함으로써 재러한인들의 이러한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다섯째, 러시아지역의 한인들은 1919년 2월 국내외에서 최초로 대한국민의회라는 정부를 조직하였다. 대한국민의회에서는 문창범, 이동휘, 최재형, 김철훈 등이 중심인물로서 활동하였다. 이 단체는 만주와 국내 등지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항일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한편 상해임시정부와도 통합을 이룩함으로써 발전적으로 해체하여 민족운동의 밑거름이 되었다.

여섯째, 대한국민의회는 1919년 3월 17일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후 우수리스크를 시작으로 블라디보스톡, 크라스키노 등 여러 지역에서 3·1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특히 블라디보스톡의 신한촌에 있는 한인들은 한민학교를 중심으로 활발히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일곱째, 3·1운동 이후 이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은 노인동맹단 등 다양한 독립운동단체를 조직하여 대일투쟁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그 중 노인단 소속의 강우규 의사의 의거는 일제를 경악케 할 정도로 큰 영향을 끼쳤다.

여덟째, 3·1운동이후 재러동포들의 활발한 대일투쟁은 1920년 4월 일제의 한인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으로 일시 정체 상태를 보이게 되었다. 즉 일본군은 1920년 4월 4-5일 블라디보스톡 신한촌과 우수리스크 등 한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습격하여 다수의 한인을 살상하는 한편 가옥 등을 파괴하였다. 신한촌의 경우 300여명을 사살했다고 하며, 우수리스크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재무총장인 최재형을 사살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러시아 극동지역에서는 1905년부터 1922년 러시아 내전이 종결되는 시기까지 동포들의 인적 물적 지원 하에 독립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리고 1919년 3·1운동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크게 기여하여 민족운동발전에 공헌하였다. 그런데 1922년 러시아 내전이 종결된 이후 연해주 지역에서는 소련의 대한인정책의 변화로 인하여 더 이상 독립운동이 전개될 수 없었으며, 1937년에는 일본의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18만 동포가 중앙아시아로 이주당하는 비운을 겪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독립유공자협회, 『러시아지역 한인사회와 민족운동사』, 교문사, 1994.

이상근, 『한인노령이주사연구』, 탐구당, 1996.

반병률,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성재 이동휘 일대기』, 범문사, 1998.

권희영, 『한국과 러시아: 관계와 변화』, 국학자료원, 1999.

박환, 『러시아한인민족운동사』, 탐구당, 1995.

박환, 『재소한인민족운동사』, 국학자료원, 1998

박환, 『대륙으로 간 혁명가들』, 국학자료원, 2003.

박환, 『박환교수의 러시아한인유적 답사기』 국학자료원, 2008.

박환, 『러시아지역 한인언론과 민족운동』, 2008

박환, 『시베리아 한인민족운동의 대부 최재형』, 역사공간, 2008

박환, 『강우규 의사평전-잊혀진 의열투쟁의 전설』, 선인출판사, 2010.